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 그 역할과 개선과제는?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이란?

전문가 기고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재인식과 지원 개선 방향 엄창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현장의 소리

농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의 초기 성과와 과제 조용상 담양군청 계장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발전 방향 모색 이오균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

개 요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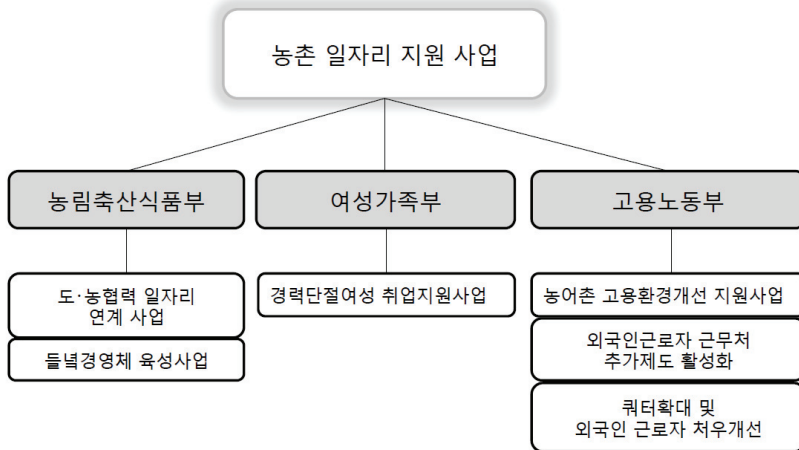
이슈리포트 제3호에서는 농촌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농촌지역은 경제적·지리적·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농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서도 지역 일자리 센터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 연계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센터 사업은 지역 간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농촌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도·농 연계형으로 운영되는데, 담양·곡성·구례와 같이 농촌지역 간 연계를 통해 농산업 부문의 일자리 순환 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농업·농촌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과 관련한 개선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호에서는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가 기고 한 편과 현장의 소리 두 편 등 총 세 편의 글을 실었다.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재인식과 지원 개선 방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의 초기 성과와 과제”에서는 담양군의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그 개선점을 살펴보았고,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발전 방향 모색”에서는 홍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이란?

농촌의 노동시장은 경제적·지리적·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농촌의 주요 일자리 부문인 농업 노동은 수요가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상시 고용보다는 일용 노동으로 수요가 집중된다. 또한 직주 근접성이 낮아 이동성이 떨어지는 노인, 이주여성 등의 취약계층의 경우, 직업훈련 등의 고용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취업하는 데 있어 공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농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농식품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여성가족부)’, ‘농어촌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농식품부)’,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제도 활성화(고용노동부)’, ‘쿼터확대 및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고용노동부)’ 등이 있다.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사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사업	
목적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내용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추진 상황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5개 지역(단양·제천, 임실·순창·남원, 담양·구례·곡성, 나주·화순, 거창·함양 ·산청) 선정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사업’은 농업인과 인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2개 이상의 시·군이 연계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

여 일자리 중개 역할을 하는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5개 지역을 선정하여, 3년간 국비 71억과 지방비 8억을 포함하여 총 79억 원을 투자한다.

2014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5개 지역(단양·제천, 임실·순창·남원, 담양·구례·곡성, 나주·화순, 거창·함양·산청)을 선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선정된 지역에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건축비, 센터운영비, 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비, 농작업 안전교육·안전보험·수송·숙박·홍보비 등을 지원하여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구인·구직 중개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성과 누적 건수를 14년 13,000건에서 19년 100,000건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육아·가사 등으로 역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목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율 높이는 것
사업 내용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지정 및 운영
추진 상황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에 총 140개가 운영

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정 및 운영함으로써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 '농어촌형 새일센터' 2개소(강원 영월새일센터, 부산 기장새일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하였으며, 2015년에는 일반형,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등의 새일센터 1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에 총 140개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6년 25개소 추가지정, 2017년 25개소 추가지정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활용관련 일자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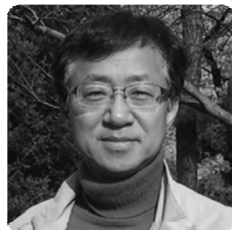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제도 활성화사업'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농지역의 농축산업 사업장에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근무처 추가제도란 근로자가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기간 만료시 원사업장으로 복귀토록하여 계절적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쿼터확대 및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외국인력을 공급하여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며, 근무경력 등을 고려한 양질의 외국인근로자를 적기에 배치하고, 농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사업주 교육 이수 시 점수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쾌적한 체류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전문가 기고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재인식과 지원 개선 방향

엄 창 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농촌은 농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만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 종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종합성, 도시부와 농촌부 혹은 지역과 지역 간의 연계라고 하는 국토공간적 종합성도 존재한다. 또한 그 종합성 속에는 국가 전체에서 가늠되는 부의 배분과 기회의 배분 그리고 역량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성이라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농촌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먼저 농촌지역의 일자리 지원제도를 앞서 말한 3가지 총괄성의 측면에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고용률 상승만으로 사업 성과를 측정하지 말아야

첫째, 사회·문화·경제적 종합성 측면에서 농촌지역 일자리 지원 사업을 경제적 관점 혹은 이윤창출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농촌 사회구성체적 관점 혹은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농촌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 창출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 전통문화 및 가치의 보존과 확산, 농업활동의 보호와 지원 등과 같은 농촌가치의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정책은 단기적으로 고용률 상승의 성과를 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식의 사업개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혹은 창농 지원 사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마을기업 지원 사업 등이 경제적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초기 사업이 시행될 때보다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아직도 사업성과의 심사 때에는 이 경제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농촌을 지속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이윤이나 수익성 잣대를 넘어 농촌 공간이라는 총체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농가와 도시 구직자를 매칭한 도·농 상생모델 필요

둘째, 공간적 총합성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일자리는 농촌만이 아닌 농촌과 도시 간의 순환공간에서 창출할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일자리 사업, 도농순환일자리사업, 귀농귀촌지원사업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농이 협력한 일자리연계 사업은 농가와 대도시권 구직자간의 인력 매칭체계를 만들어 농가에는 적기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도시권 구직자에게는 일자리와 농촌체험 및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농상생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차 산업화, 주민 역량 강화를 돕는 사업이 되어야

셋째, 분배의 총합성 측면에서 농촌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도시와 농촌간의 부·기회·역량의 불균형을 줄여 농촌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촌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6차산업화사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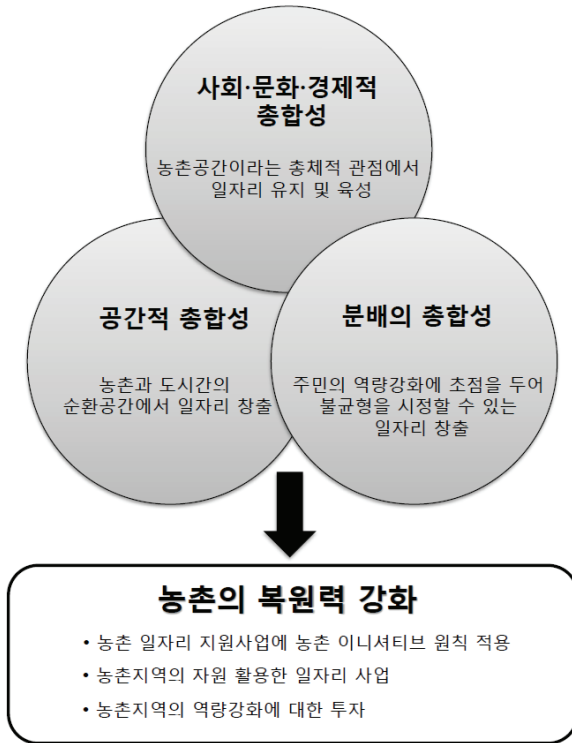
같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농촌의 부·기회·역량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촌의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도시와의 경제적 차이를 좁히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의 핵심은 농촌지역 사업주체의 역량강화일 것이다. 물론 6차산업화 지원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론상의 계획일 뿐이고 산업육성을 통한 시장적 성과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의 총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다. 앞으로 정책평가는 주민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부·기회·역량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곳에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다.

지역 자원에 기반, 농촌의 정주기반을 갖추는 데 기여하는 일자리 정책이 관건

필자의 관심은 농촌이 어떻게 해야 농촌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은 농촌성을 강화하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 일자리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은 농촌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농촌 이니셔티브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농촌 공간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정주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도시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비용이 농촌 생활에서 급증하게 되고, 그 비용으로 인해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의 일자리 지원 사업 역시 궁극적으로 농촌이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공간으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자원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



공해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 및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은 모두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농가주택을 개량한 농촌관광 숙박업을 지원 대상 일자리로 확장하는 것이라든지, 농촌형 자유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도 활발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촌을 무대로 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개발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 와인 소믈리에뿐만 아니라 농주 소믈리에, 산채 소믈리에도 생각할 수 있고, ICT를 접목한 영농컨설팅과 농촌 비즈니스 서비스사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의 역량강화에 대한 투자이다. 과거 노동력이 쉽게 공급되던 시절에는 공단부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지어 설비시설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그 시절은 지나갔다. 창의적 인재를 찾아 기업이 움직이는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인력양성이 지역개발정책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 경향은 농촌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농촌의 인구구성을 보면 지역에 따라 인적자본의 축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으로 인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인적자원이 공급되고 있다. 귀농·귀촌자들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업화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통합의 과제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중간조직을 지원하고, 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의 초기 성과와 과제

조 용 상 담양군청 계장

담양군, 농업 인력의 문제는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30년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을 내다보기 힘들다. 특히 농업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업의 생산성 하락으로 직결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담양군의 경우 농업인구는 2010년도 16,876명(총인구 47,808명)에서 2014년도 15,415명(총인구 47,612명)으로 군 인구의 9.9%까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2012년도에 이미 초고령화에 해당하는 고령화률 26%에 달했다. 아울러 농업의 형태가 단순 수도작 농업에서 과수, 시설채소, 축산 등 복합영농으로 변화함에 따라, 작물에 따라 수확기 인력수요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일시적인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담양군의 노력



담양군은 다행히도 지리적으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잉여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작물별 수확기 편차로 인해 시기별로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이를 농업의 인력난 해소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2015년 6월 30일자로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지역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가공업체, 축산업 단체 등 31개소가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 내 상담사 2명이 상주하여 농산업분야의 일자리와 인력을 연계하고 있다.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일손필요 농가 61건, 일자리 참여 인력이 164건이며, Matching 실적은 1,08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 참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과 교통비, 교육비, 안전물품등을 지원하여 참여자의 노동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의 애로사항

농산업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인건비를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하여 잉여인력을 농업분야의 일자리에 참여시키는가이다. 담양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농가의 농장 규모가 영세하고 집약적인 농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인근 시군보다 낮아(타 시군에 대비 1~2만원 적음, 남자 70,000원, 여자 50,000원)참여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참여자의 입장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담양군의 전체적인 농업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한 시설원예(딸기, 방울토마토), 대규모 축산 단지의 경우 상시 고용인력(외국인 또는 지역민)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건비의 증가로 농가의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인건비 지급에 애로가 있어 일자리 연계 센터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담양군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노동자에게 상해보험, 산재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노동환경 개선으로 노동력을 사업장에 끌어들이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생산성 높은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농업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담양군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 담양군의 일자리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다.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발전 방향 모색

이 오 군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개발로 인해 농촌지역이 도시화 되면서, 여성 경제활동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여성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2015년 9월에 개소하였다.



일하고 싶지만 일하기 힘든 경력단절 여성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육아’가 7.5%, ‘가사’가 60.9%, ‘재학·진학’이 16.1%, ‘취업준비’가 3.7%, ‘연로 문제’가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충남여성정책개발원 비경제활동 현황 분석). 즉, 가사, 양육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어렵다. 또 하나에 문제는 경력단절 여성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 구직에 대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령 센터에 구직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직 연계가 들어오면 취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적인 제약과 지역 여성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체계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해결이 필요한 핵심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새일센터, 지역과 여성을 고려하다

홍성군은 농업·임업·어업 비율이 37.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관련 사업이 가장 비중이 높다. 이에 새일센터에서는 지역여성이 관심이 있는 분야와 농업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농촌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 아이템 개발도 도전할 계획이다. 새일센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SNS 및 정보화 습득 능력이 빠르고 젊은 여성들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과 농업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온라인 판매 교육에 생산자가 직접 온라인 판매 운영 시 시간적, 인력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착안하여 2015년 농산물 SNS 마케팅 전문가 과정으로 직업교육훈련을 개설 운영하였다. 사진촬영에서 텔레마케팅, 블로그 운영 등 다양한 기술과 교육을 수료한 여성들은 동아리를 구성하

여 농산물 온라인 판매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으며 홍성군 SNS 서포터즈단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홍보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농촌지역 여성들이 취·창업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여성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과 여성 창의력과 섬세함을 더 발전시켜 성공 아이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 개발 교육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새일센터는 구인처와 구직자의 맞춤형 전문기술 습득과 취업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는 중요한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문기술이다. 전문기술로 인하여 고용에 가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직장 생활 적응력에도 전문기술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2015년도에는 기업체에서 가장 많은 요구하는 회계, 행정, 경영들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문을 열고 있다. 하나의 예로 우리 센터는 2015년 10월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업무협약식을 갖고 2016년 직업훈련 과정으로 통계 전문가를 양성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충청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급식소가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전문기술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문을 더 크게 열어 줄 계획이다.

여성 취업, 지역이 함께 고민하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은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문제이며 지역에서 풀어야할 과제로 지역 사회에 협력이 뒷받침 될 때 조금씩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일센터에서는 지역 기업협의회, 농촌관련 단체, 여성단체, 여성 전문가, 마을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모여 경력단절 여성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과 지원 정책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여성일자리리를 만들고 여성이 안정된 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관련 지원사업과 농촌지역 지원사업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가이드북도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일센터, 여성의 자존감을 높인다

여성들은 결혼, 양육과 가사의 시간들로 인하여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단절을 가져오게 되면서 스스로의 힘과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새일센터에서는 여성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 “어디서나 당당한 여성으로”, “언제나 도전하는 여성으로”, “누구보다 용기 있는 여성”으로 변화하기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새일센터의 성장, 느려도 여성 친화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창업은 매우 어렵고 힘들 일이다. 홍성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여성의 취·창업에 사회적, 지역적, 문화적 문제와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농업이 인류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어 온 사업이며 앞으로도 불변 없이 지속될 사업이기에 서두르지 않고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취업 연계만이 아닌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여성지역여성의 소리를 듣고, 여성의 눈으로 보고, 여성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실천하는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성장할 것이다.

ISSUE REPORT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그 역할과 개선과제는?

인 쇄	2016. 01.
발 행	2016. 01.
발행인	최세균
기 획	심재현, 조미형
편 집	유은영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